



경찰, 누웨모루거리서 범죄예방활동

외국인 범죄 취약지 대상 민관경 합동순찰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한 치안 유지할 것”

제주에 외국인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23일 오후 8시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거리에는 경찰 포함 100여명의 무리가 일시에 나타났다. 시민들은 무슨 큰 사건이라도 난줄 알고 잠시 긴장했지만 곧 안도했다. 이들이 두른 띠에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외국인 범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제주자치경찰단과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자울방범대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순찰’을 벌였다.

이날 순찰은 지난 1일부터 추진된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및 ‘안전한 제주만들기’ 캠페인의 일환

으로 누웨모루거리와 제주시청·삼부공원·이중섭거리 일대 등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이날 순찰에서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불안 장소(요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보이스피싱 예방,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및 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준수 계도 활동 등이 이뤄졌다.

누웨모루 거리에서 만난 김모(38)씨는 “외국인 강력사건과 고유정 사건, 카니발 사건 등으로 제주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경찰이 제대로 인식해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



경찰은 23일 누웨모루거리 등 외국인 범죄 취약 장소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벌였다.

가 최근 외국인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치안이 불안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치안 문제점을 확인·개선해 도민 체감 치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 역시 3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각종 범죄 지표에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주택용 컨테이너 화재

지난 22일 오후 7시1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주택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32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학교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 급식기구에 대한 미생물 검사가 진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연2회 정기 학교급식 점검뿐만 아니라 광주식약청·도청·행정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를 방문해 ‘2019 가을 신학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게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2019 하반기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검사’를 진행한다. 미생물 검사는 급식기구 가검물 채취 후 전문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해균 검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표선종기자 sjpyo@ihalla.com



추석전 조상묘 벌초하는 후손들 가을 길목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22일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공원공설묘지와 가족공동묘지를 찾아 벌초를 하고 있다.

치매환자 잇단 실종… 경찰 ‘배회감지기’ 보급

제주에서 최근 실종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상습 실종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53대를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실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되며, 이후에는 실종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배회감지기 신청을 원할 경우 제주시동부권은 701-8834, 제주시서부권 710-6526, 서귀포시 710-8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배회감지기 보급이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던 A(18)군이 실종돼 나흘 만인 8월 1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주거지를 나선 뒤 실종된 김호임(87) 할머니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실종 당시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키는 148cm로 마른 체형에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닌다.

송은범기자

노부부 참변 50대 음주운전자 구속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원 “도주할 우려 있다”

속보=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에 대한 우려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쯤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치는 사고로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또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사고로 숨진 김씨 부부는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사고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윤기자

내국인 여성에 흉기 폭력 40대 중국인 집유2년 선고

제주에서 20대 내국인 여성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린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내국인 A(27)씨의 여자친구 B(24)씨의 목덜미를 만진 일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일행과 함께 폭행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린씨는 같은날 오후 10시50분쯤 해당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있던 A씨에게 달려들어 재차 폭행하고, 이를 멀리던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탐동해상 추락 만취 40대 구사일생

인근서 낚시하던 대학생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해

제주 탐동 해안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으나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대학생에 의해 구조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2분쯤 제주시 탐동 광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대학생 조모(25)씨로부터 한 남성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조씨는 신고 후 인명구조함에 서 구명조끼를 꺼내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 익수자 강모(41)씨를 붙잡았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육상에서 약 20m 정도 떨어져있는 조씨와 강씨를 발

견하고 해경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했다. 구조된 강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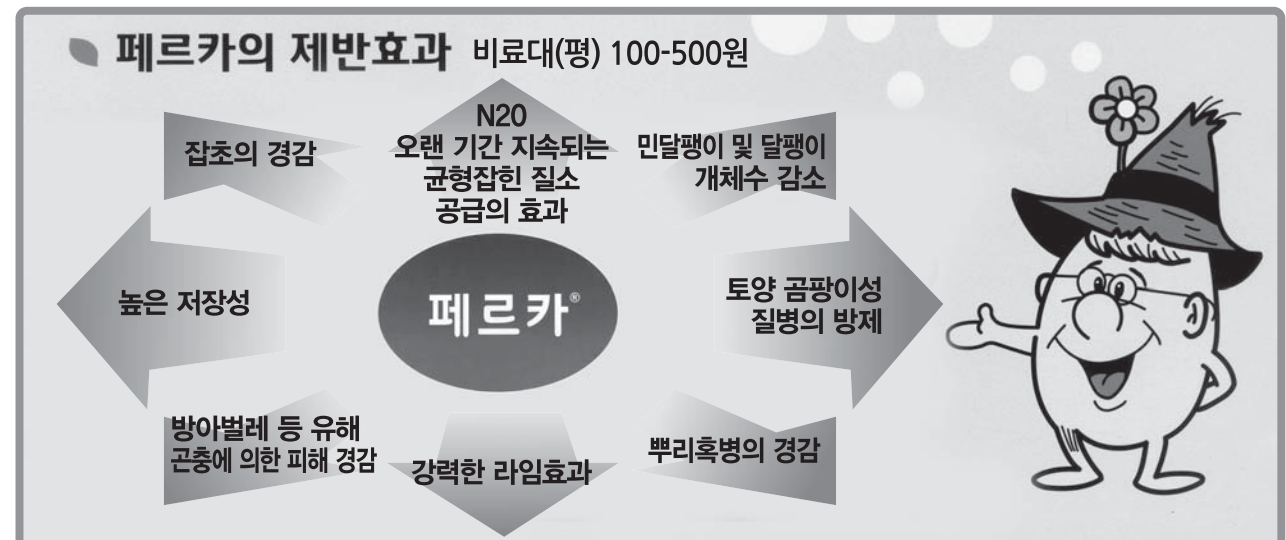
해경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수자 구조에 도움을 준 조씨는 “낚시를 하던 중 계단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봤으나 잠시 뒤 남성이 보이지 않자 물에 빠진 것을 짐작하고 해양경찰에 신고했다”며 “아무도 물에 빠진 것을 모르고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물에 뛰어 들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씨의 빠른 신고와 행동 덕분에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석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무우앵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감 자

무 우

마 늘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